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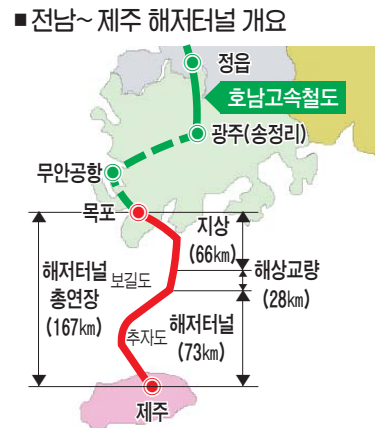
전남~제주 해저고속철 전망 밝다

여야 정치권 앞다퉀 핵심공약 채택 전남도 첫 국고 요청 본격 사업추진

남해안 선벨트구상의 핵심사업인 전남~제주 해저고속철 사업이 대선 앞두고 여야의 핵심 공약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정부에 전남~제주 해저고속철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고 지원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치권 '적극 추진' 한 목소리= 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호남과

전남의 최대 현안인 해저 고속철도 사업을 대선 공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동남권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견줄 수 있는 호남권의 대형 프로젝트는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일 "전남~제주 해저고속철은 경제력 타당성 여부를 떠나 한반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전남~제주 해저고속철 건설을 통해 쌓은 기술력 등을 토대로 한·중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

널, 유라시아 대륙 철도 건설의 꿈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의 대선 공약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전남~제주 해저고속철 사업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명박 정부가 전남~제주 해저고속철 사업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전남~제주 해저고속철 사업을 당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도 지난달 25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전남~제주 해저고속철 사업은 호남과 제주의 접근성이 강화되는 것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지



원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전남도 첫 국고 요청=전남도는 최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전남~제주 해저고속철 기본계획 수립 예산 100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해저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될 예산

요구서에 이 예산이 포함된다면, 사실상 정부가 전남~제주 해저고속철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전남도는 대선 정국에서 전남~제주 해저고속철이 이 지역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야를 상대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차기 정부가 국내 건설 경기 부양책으로 전남~제주 해저고속철 건설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토부가 최근 완료한 해저고속철 타당성 조사 결과의 경제성(B/C)이 최근 제주도의 중국 관광객 증가로, 지난 2008년 국토개발연구원의 발표한 경제성 0.84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등산 정상 개방...3만 인파 무등산 정상이 개방된 1일,形形色색의 등산복을 입은 탐방객들이 서석대를 거쳐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며칠째 이어지던 장맛비가 잠시 그치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진 이날 무등산에는 3만여명의 인파가 몰려 대자연의 정취를 즐겼다. 이번 정상개방은 지난해 두 차례와 올 봄에 이어 네 번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금남로 4차로 잔디공원 교통대책은 거점 주차장·우회도로 확보 관건

광주시가 민선 5기 하반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금남로 5·18 민주·평화 녹색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금남로 구간의 향후 교통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혼잡한 도심교통을 더욱 악화시키고 주변 상가 및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12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 6월 29일(금)까지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5 학부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로 4거리의 518m 구간을 잔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현재의 왕복 6차로 가운데 인도와 맞닿은 1차로씩을 확보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이나 업무용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원칙적으로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광주시민 90% "정권교체 희망" 62% "범야권 후보 경선 호남 선택 결정적"

광주시민 10명 중 6명은 오는 12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범야권 후보 결정과정에서 호남의 선택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89.8%는 이번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70.5%는 범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전·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 시민운동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2013포럼'이 지난 달 16~18일 한국공공데이터센터에 의뢰해 광주시민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외식조사' 결과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 나설 범야권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호남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3.8%는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48.2%는 "대체로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62.0%가 범야권 후보 경선에서 호남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같은 조치로 인해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들이 전담하고 앞 도로와 원변 도로 등으로 우회해야 함에 따라 금남로 주변 우회 도로의 정체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광주 동구 '충장축제'와 5·18 행사기간 동안 금남로 일부 구간의 차량통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멘소리를 해온 일부 상인들의 불만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통 전문가들과 인근 상인들은 시민공원이 조성될 금남로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IOPE 스킨리프트

농친주름을 잡아야 어려워요

주름을 놓치면 나이가 되니까
5가지 주름을 모두 관리하는 새로운 레티놀

주름은 한번 시작되면 얼굴 전체로 퍼지는데 왜 한 가지 주름에만 신경 쓰세요?
아이오페 레티놀은 주름이 생긴 피부를 활성화시켜 얼굴 전체의 5가지 주름을 모두 관리합니다
이제 강력한 레티놀의 리얼한 효과를 얼굴 전체로 느껴보세요

5가지 주름케어로
링클케어, 리얼이되다

- ✓ 깊은 주름
- ✓ 표정 주름
- ✓ 모공 주름
- ✓ 미세 주름
- ✓ 속 주름

레티놀에이지코렉터
IOPE

Wrinkle Care □ Whitening □ Lifting □ Anti-Ageing □ Pore Care □ Trouble Care □ Sun Care □ Hydrating